

##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척도 개발 -양육효능감 증진 부모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정미현\*

### 요 약

본 연구는 양육효능감 증진을 위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최형성·정옥분이 제작한 아동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척도를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척도로의 수정작업과 수정된 척도의 타당화 작업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양육지식, 양육태도, 자기조절능력,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등 다섯 가지 하위척도로 나타났다. 연구의 의의는 이 척도가 매우 타당성 있는 척도로서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고 양육효능감 프로그램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주제어 : 부모교육프로그램, 양육효능감, 영유아기

---

논문 제출일 : 2010. 4. 11.                      최종 심사일 : 2010. 6. 1.

\* 남서울대학교 겸임교수, 고려대학교 강사

Corresponding Author : Jung mi hyun, Dept. of Child Welfare, Namseoul University, Mae Ju-ri Seonghwan-Eup, Seobuk-gu, Cheonan, Korea, 331-707. Email : childrenk@hanmail.net

## I. 서론

지금까지 부모의 자녀양육과 관련된 연구들은 주로 부모의 양육행동이나 부모자녀관계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지만 최근의 연구들은 양육의 인지적 요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Davis-Kean et al., 2008). 양육상황에서 부모의 신념과 부모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궁극적으로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주목되고 있는 개념이 양육효능감이다.

양육효능감에 대한 연구들을 통해 학자들이 정의하고 있는 양육효능감의 개념을 살펴보면, 양육효능감은 Bandura의 자기효능감 개념에서 파생된 개념이다. 이는 가정이라는 환경에서 양육과 관련되어 생성되는 일상의 다양한 상황에서 요구되는 부모역할과 관련된 개념이다(Bryanton, 2008). Bandura(2006)는 양육효능감의 개념에 대하여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지식과, 자신의 부모역할 수행능력을 신뢰할 수 있는 정도라고 정의 하였고, Coleman과 Karraker(2003)는 바람직한 양육행동을 효과적으로 할 것이라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 그리고 적절한 양육행동에 대한 지식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Leerkes와 Burney(2007)는 양육효능감을 자녀를 잘 양육하고 훈육하며 자녀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잘 해결할 수 있다는 부모로서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양육효능감을 양육상황에서 바람직한 양육행동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며 양육상황에서 발생하는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내는 기술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한다.

양육효능감에 대한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양육효능감은 양육 상황에서 부모로 하여금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게 함으로써 정서적 긴장과 실망에 대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며, 아동의 자기통제력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Guimond, Wilcox, & Lamorey, 2008; Hsu & Sung, 2008; Sanders & Woolley, 2004). 양육효능감이 높은 부모는 자녀에게 보다 수용적이고 비차별적이며(Bryanton et al., 2008; Coleman & Karraker, 2003; Gerdes et al., 2007), 건강과 신체적 면역기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Guimond, Wilcox, & Lamorey, 2008), 양육상황에 긍정적으로 적응하게 하며, 부모의 양육행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자녀의 성취동기와 자기효능감 증진에 도움을 준다(Bandura, 2006; Hsu & Sung, 2008; Bodenmann et al., 2008)고 하였다. 반면, 양육효능감이 낮은 부모는 통제적이고 강압

적이며, 체벌적이고, 문제 상황에 부딪혔을 때 효능감이 높은 부모에 비해 더 비관적이며, 비효율적인 문제해결전략을 사용한다(Bandura, 2006; Bryanton et al., 2008; Gerdes et al 2007; Harty, Alant, & Uys, 2006)고 하였다.

양육효능감과 관련된 연구는 최근에서야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문혁준, 1995),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관련변인을 명확히 규명하는 연구와 영유아기 부모의 양육효능감 관련 프로그램 개발 연구는 미흡한 수준이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들이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측정할 타당한 척도가 필요하다.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측정할 척도에 대한 연구는 외국의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한 것이 대부분이다. 양육효능감이란 문화에 의해 산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에 따라 평가에 차이가 있고(Bornstein et al., 2009), 양육효능감 자체를 측정하도록 구성된 것이 아니라 하위의 영역 중 1개의 영역으로서의 양육효능감을 측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도구를 번안한 것이라는 단점 등을 가지고 있다(최형성, 2001).

양육효능감 척도에 대한 선행연구들에서 언급된 양육효능감의 구성요소에 대해 살펴보면, Gibaud-Wallston과 Wandersman(1978)은 인지적 차원인 부모로서의 자신감과 정서적 차원인 부모로서의 좌절감과 불안으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Bandura(1993)는 양육효능감의 구성요소를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과제난이도, 성공 및 실패 귀인으로 구분하였다. Allen(1993)은 양육효능감 구성요인을 사랑, 통제, 의사소통, 교육, 전반적 효능감(*general efficacy*)으로 구분하였다. Coleman과 Karraker(2003)는 양육효능감의 구성요소를 정서적 가용성, 양육·가치·공감적 반응, 보호, 훈육·제한, 놀이, 교육, 도구적 양육·구조화·일상생활 등으로, Montigny와 Lacharite(2005)는 부모의 신념과 판단, 여러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일련의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활동, 양육과 관련된 특정한 상황에서의 과제, 최형성 등(2004)은 전반적 양육능력,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의사소통능력, 학습지도능력, 훈육능력으로 구분하였다.

양육효능감은 신념적인 부분에서의 인지적 차원(Coleman & Karraker, 2003; Donovan, Leavitt, & Walsh, 1990; Teti & Gelfand, 1991)과 문제해결능력인 기술 등의 행동적 차원(Baumrind, 1991; Maccoby & Martin, 1983), 그리고 감정을 조절하는 정서적 차원(Dix, 1991; Gelfand & Teti, 1990; Teti et al., 1995)을 포함한 다차원적 구조를 가진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신념과 같은 인지적 차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최형성 등(2004)의 구성요소는 한국적 문화를 고려하여 제작되었기 때문에 최형성의 최근의 많은 국내연구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이들 연구들을 통해 타당성 있는 척도로 지지받고 있다.

한국의 문화에 맞는 양육효능감 척도라는 매우 큰 장점을 가진 타당하고 유효한 척도로서 많은 국내연구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양육효능감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는 용어나 어휘 부분에 있어 적절하지 않는 부분이 다소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형성의 양육효능감 척도를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척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문항으로 수정하여 이를 타당화 하는 작업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에 이 척도를 만든 최형성의 사전 동의를 얻어 질문 문항을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에게 적절한 어휘로 수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형성의 양육효능감척도의 수정작업과 수정된 척도의 타당화 작업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설정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취학 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척도의 구성타당도는 어떠한가?

둘째, 취학 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척도의 신뢰도는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경기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서울·경기지역의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총 200명이 편의 표집되었으나 이 중 질문에 누락된 문항이 있는 12명을 제외한 188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 2. 연구절차

### 1) 예비조사

최형성(2002)의 양육효능감 척도 중 질문 문항이 영유아기 부모에게 적합하지 않는 문항을 수정하여 아동학 전공 교수 3인에게 내용 검토를 의뢰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일부 문항을 수정하였다. 1차 예비조사를 기초로 수정된 37문항 문항의 적합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영유아기 부모 50명을 대상으로 2차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 ~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이때 응답하기 어렵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문항이 있을 경우, 그리고 질문이 부모의 입장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 될 경우 표시하도록 하였다. 회수된 50부의 자료를 가지고 37개 문항에 대한 반응분포를 분석해본 결과 천정 효과와 극단적으로 작은 표준편차를 가진 문항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 2) 본조사

본조사는 2010년 2월 20일에서 10일 간에 걸쳐 서울 및 경기지역에 있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본 조사 대상은 예비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부모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200부의 설문지 중 미 응답 및 성실한 답변이 아닌 설문지 12부를 제외한 188부를 최종적으로 분석하였다.

수정된 척도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안면타당도, 구인타당도, 공인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37문항의 척도 중 영유아기의 자녀를 둔 부모에게 적절하지 않는 5개의 문항 내용을 수정하여 아동학 전공 교수 3인에게 안면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전공 교수들에 의해 각 요인의 이름이 결정되었으며 타당도 검증을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 3.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척도이다. 이 척도는 최형성(2002)이 선행연구를 참고로 하여 제작한 것을 연구자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최형성(2002)의 척도는 총 37문항으로 전반적인 양육능력(11문항),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7문항), 의사소통능력(9문항), 학습지도능력(6문항), 훈육능력(4문항)의 다섯 가지 하위요인

으로 구성되어 있고, Likert식 5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 계수는 Cronbach  $\alpha = .92$ 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요인타당도는 .65~.86으로 나타났고 공인 타당도는 .51~.71로 나타났다.

<표 1> 양육효능감 하위 영역별 신뢰도와 타당도

하위요인	문항수	Cronbach $\alpha$	반분신뢰도	요인타당도
전반적인 양육능력	11	.86	.84	.86
건강하게 양육하기	7	.75	.74	.80
의사소통능력	9	.80	.78	.79
학습지도능력	6	.76	.75	.75
훈육능력	4	.75	.71	.65

####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5.0 program을 통해 분석되었다. 구인타당도 검증을 위해 Varimax 회전방식을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신뢰도는 척도를 구성하는 문항간의 내적 합치도(Cronbach  $\alpha$ )를 산출하여 검증하였다.

### III. 분석결과

#### 1. 구인타당도

취학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을 위해서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방법과 직교회전방법인 VARIMAX를 사용하여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lt;표 2&gt; 취학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의 요인분석

		요인				
		1	2	3	4	5
양육지식	VAR00004	.773	.379	.050	.221	-.099
	VAR00005	.717	.132	.293	.187	.124
	VAR00006	.698	.124	.427	.266	.228
	VAR00021	.659	.403	.157	.073	.243
	VAR00023	.625	.120	.081	.480	.213
	VAR00008	.620	.451	.308	.166	.268
	VAR00007	.620	.305	.381	.235	.309
	VAR00032	.564	.292	.342	.323	.097
	VAR00012	.552	.298	.440	.269	.431
	VAR00035	.543	.292	.119	.509	.154
	VAR00031	.534	.127	.477	.484	.144
	VAR00019	.526	.383	.292	.412	.255
	VAR00030	.454	.135	.284	.416	.375
양육태도	VAR00034	.225	.761	.257	.318	-.058
	VAR00036	.412	.714	.186	.130	.149
	VAR00017	.268	.702	.140	.305	.275
	VAR00029	.224	.656	.504	.236	.125
	VAR00037	.387	.589	.072	.283	.443
	VAR00013	.464	.492	.322	.030	.395
자기조절 능력	VAR00002	.221	.073	.814	.244	.284
	VAR00003	.344	.237	.783	.160	.211
	VAR00033	.331	.334	.634	.179	.178
	VAR00028	.074	.305	.573	.394	.440
	VAR00001	.514	.453	.554	.183	.002
	VAR00009	.251	.183	.512	.302	.421
문제해결 능력	VAR00015	.157	.053	.122	.849	.292
	VAR00014	.162	.287	.230	.790	-.052
	VAR00016	.305	.119	.219	.686	.242

	VAR00024	.325	.306	.158	.673	.110
	VAR00010	.418	.373	.262	.454	.107
의사소통 능력	VAR00011	.113	-.030	.149	.103	.810
	VAR00025	.123	.243	.375	.326	.632
	VAR00020	.231	.435	.445	.036	.533
	VAR00022	.462	.450	.071	.220	.467
	VAR00026	.438	.452	.330	.132	.458
	VAR00027	.018	.329	.392	.453	.457
	VAR00018	.335	.365	.329	.281	.400
	고유값	7.221	5.424	5.263	5.174	4.096
	분산율	19.516	14.660	14.225	13.984	11.070
	누적분산율	19.516	34.176	48.401	62.385	73.455

KMO(Kaiser-Meyer-Olkin)측도는 변수 쌍들간의 상관관계가 다른 변수에 의해 잘 설명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 측도의 값이 작으면 요인분석을 위한 변수들의 선정이 좋지 못함을 나타낸다. KMO 값이 .90이면 상당히 좋은 것이며, .80이상이면 꽤 좋은 것이고, .70이상이면 적당한 것이며 .60이상이면 평범한 것이고, .50이상이면 바람직한 것이나, 0.50미만이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본 연구에서는 KMO 값이 0.879로 꽤 좋으므로 변수 쌍들의 상관관계가 다른 변수에 의해 잘 설명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요인분석의 적합성 여부를 나타내는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치(Test of Sphericity)는 근사 카이제곱값이 2486.115로 유의수준이 .000으로 나타나 요인분석 사용이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인을 추출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각 요인이 기존변수의 정보를 어느 정도 설명하는지를 나타내는 고유값(eigen-value)을 이용하여, 고유값이 1.0이상인 요인에 한하며 요인적재량이 0.4이상인 항목들을 기준으로 설정하여 요인수를 5개로 결정하였다.

그 결과 요인 1은 고유값이 7.221, 설명비가 19.51%로 나타나 A 요인을, 요인 2는 고유값이 5.424, 설명비가 14.66%로 나타나 B 요인을 설명해 주고 있고, 요인 3은 고유값이 5.263, 설명비가 14.22%로 나타나 C 요인을, 요인 4는 고유값이 5.174, 설명비가 13.98%로 나타나 D 요인을, 요인 5는 고유값이 4.096, 설명비가 11.07%로 나타나 E 요인을 설명해주고 있다.

요인행렬의 요인부하량은 각 변수 혹은 문항의 요인에 대한 가중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요

인간 상관이 없다고 가정할 때 각 변수 혹은 문항과 요인간의 상관관계로 해석한다. 3이상이면 요인과의 상관이 높다고 해석되므로 요인 1은 4, 5, 6, 7, 8, 12, 19, 21, 23, 30, 31, 32, 요인 2는 13, 17, 29, 34, 36, 37, 요인 3은 1, 2, 3, 9, 28, 33, 요인 4는 10, 14, 15, 16, 24, 요인 5는 11, 18, 20, 22, 25, 26, 27이 설명하고 있다. 다섯 개의 요인을 추출한 결과 전체분산의 73.455%를 설명하고 있어 총 37개 문항으로 구성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측정도구는 다섯 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의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문항을 수정한 본 연구의 척도를 문항양호도와 요인분석을 통해 요인을 추출하였다. 척도의 문항양호도를 구하기 위해 각 문항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상대대수분포(%), 문항-척도 전체의 상관, 문항변별도, 그리고 문항제거시의 내적합치도를 산출하였다.

문항양호도 분석에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난 37개 문항을 대상으로 문항의 구조를 파악하고 척도 구성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먼저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공통요인분석으로 요인을 추출하고 scree검사와 누적분산비율을 고려하여 요인수를 지정하였으며, 직각회전방법(varimax)를 사용하였다. 요인분석결과 전체 변량의 73.455%를 설명하는 5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요인 1은 전체 변량의 19.516%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4, 5, 6, 7, 8, 12, 19, 21, 23, 30, 31, 32의 12개의 요인이 포함되며 자녀를 양육할 책임을 지고 있는 부모가 자녀의 발달을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지 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영유아의 전반적인 발달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담고 있어서 ‘양육지식’으로 명명하였다. MacPhee와 Miller-Heyl(2003)에 의하면 양육지식은 연령에 따라 이상적인 아동발달 상태에 관한 내용을 의미하는 발달 지식, 이상적인 아동의 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바람직한 양육방식, 유아기 경험의 중요성 및 개인차에 관한 발달 원리이다.

요인 2는 13, 17, 29, 34, 36, 37의 6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전체 변량의 14.660%를 설명하고 있고, 부모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내적, 외적 태도나 행동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부모가 얼마나 자녀에게 지지적이고 엄격한지의 정도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양육태도’로 명명하였다. 이러한 양육태도는 부모-자녀관계의 질을 결정하며, 가족이 적응적으로 기능하게 한다(Hofferth & Anderson, 2003).

요인 3은 1, 2, 3, 9, 28, 33의 6개 문항으로 전체변량의 14.225를 설명하고 있으며, 특정상황에서 외적인 통제 대상이 없이도 특정행동과 관련된 선후요인을 파악하여 내적 통제에 의해 내면화된 규칙에 따라 자신의 행동이나 정서를 적절히 조정하는 능력이다. 이는 행동적 자기

조절과 정서적 자기조절을 포함하고 있어서 ‘자기조절능력’으로 명명하였다. Eisenberg와 동료들(1996, 1998)은 자기조절능력은 내적인 정서조절과 정서관련 행동조절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는 주의(attention), 통제(control), 충동성(impulsivity) 등이 포함되는데, 주의는 집중하는 능력, 통제는 부적절한 반응을 억제하는 능력, 충동성은 원하는 목적을 이룰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특성을 의미한다.

요인 4는 10, 14, 15, 16, 24의 5개의 문항으로서 전체변량의 13.984를 설명하고 있고, 문제 해결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문제해결능력’으로 명명하였다. Mayer(1998)는 문제해결이란 주어진 상황을 문제해결의 목표상황으로 전환해가는 인지과정으로 규정한다. 즉, 문제란 목표상황이 아닌 현재 상태를 말하며, 문제해결이란 현재의 상황을 목표상황으로 변화시켜주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요인 5는 11, 18, 20, 22, 25, 26, 27의 7개의 문항으로서 전체변량의 11.070을 설명하고 있고, 개인 상호간의 감정이나 의견을 효율적으로 주고받는 과정에 대한 지식과 능력을 의미하고 있어 ‘의사소통능력’능력으로 명명하였다.

## 2. 신뢰도

본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내적합치도를 구체적인 계수로 반영해주는 Cronbach's  $\alpha$  계수와 반분신뢰도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신뢰도 분석결과 내적 합치도의 경우 척도전체의 신뢰도는 .881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요인별 신뢰도 계수도 높게 나타났다.

<표 3> 양육효능감 척도의 신뢰도

	문항수	Cronbach's $\alpha$	반분신뢰도	
양육지식	13	.957	.945	
양육태도	6	.916	.902	
양육효능감	자기조절능력	6	.920	.921
	문제해결능력	5	.890	.851
	의사소통능력	7	.893	.897
양육효능감 전체		28	.881	.965

##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취학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취학 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척도 문항의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여 문항의 양호도를 알아본 결과 문항의 반응분포과 문항의 변별도에서 양호함을 확인하였고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과 준거타당도를 검증한 결과 정적 상관을 나타냄으로써 준거관련 타당도의 증거를 확인하였다.

둘째,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내적합치도(Cronbach  $\alpha$ )를 산출한 결과 전체 척도의 신뢰도는 .881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양육지식, 양육태도, 자기조절능력,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이 각각 .957, .916, .920, .890, .893 등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재 구성된 척도는 신뢰롭다고 하겠다.

이상과 같이 문항의 양호도, 척도의 타당도,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취학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척도는 신뢰롭게 측정할 수 있는 척도라고 하겠다. 즉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척도는 5개 영역으로 타당성과 신뢰도가 검증된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척도의 타당화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연구되었고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양육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한 양육효능감 측정도구의 타당화를 실시하였는데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양육지식, 양육태도, 자기조절능력,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등 다섯 가지 하위척도로 구성된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하여 국내에서는 비교적 최근에 와서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인 양육효능감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양육효능감 부모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 참 고 문 헌

- 문혁준(1995). 취학전 아동을 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관련변인 연구. *아동학회지*, 26(5), 139-149.
- 최형성(2002).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 및 스트레스와 아동의 기질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최형성·정옥분(2001).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척도의 개발. *아동학회지*, 22(3), 1-16.
- Allen, N. J., Meyer, J. P. (1990). The measurement and antecedents of affective, Continuance and normative commitment. *Journal of Occupational Psychology*, 63, 1-18.
- Bandura, A. (1993). Perceived self-efficacy in cognitive development and functioning. *Educational Psychologist*, 28(2), 117-148.
- Bandura, A. (2006). Guide for constructing self-efficacy scales, in: F. Pajares & T. Urdan. (Eds.). *Adolescence and education*, vol. 4 : *self-efficacy beliefs adolescents*(Greenwich, CT, Information age Publishing). 307-337.
- Bodenmann, Cina, Ledermann Sanders. (2008). The efficacy of the Triple P-Positive Parenting Program in improving parenting and child behavior: A comparison with two other treatment condition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6, 411-427.
- Bornstein, M. H., Cote, L. R. (2009). Knowledge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interactions among immigrants to America: Perspectives from developmental science. In J. E. Lansford, K. Deater-Deckard, & M. H. Bronstein(Eds.), *Immigrant families in contemporary society*(pp. 121-136, Vol. 7). NY : Guilford press.
- Bryanton, J., Gagnon, A. J., Hatem, M., & Johnston, C. (2008). Predictors of Early Parenting Self-efficacy. Results of a Prospective Cohort Study. *Nursing Research*, 57(4), 252-259.
- Coleman, P. K., & Karraker, K. H. (2003). Parenting Self-Efficacy Among Mothers of School-Age Children: Conceptualization, measurement, and Correlates. *Family Relations*, 49, 13-24.
- Davis-Kean, P. E., Collins, W. A., Bates, J. E., & Lansford, J. E. (2008). Changes in the relation of self-efficacy beliefs and behaviors across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79(5), 1257-1296.
- Dix, T. (1991). The affective organization of parenting: Adaptive and maladaptive processes. In S. P. Hinshaw(Ed.), *Psychological Bulletin*, 110(1), 3-25.
- Donovan, W. L., Taylor, N., & Leavitt, L. (2007). Maternal self-efficacy, Knowledge of infant development, Sensory sensitivity, and maternal response during interac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43(4), 865-876.
- Gerdes, A. C., Hoza, B., Arnold, L. E., Pelham, W. E., Swanson, J. M., Wigal, T., & Jensen, P. S. (2007). Maternal Depressive Symptomatology and Parenting Behavior: Exploration of possible mediators. *Journal of Abnorm Child Psychology*, 35, 705-714. UCB Broadcasters

Ltd.

- Gibaud-Wallston, J., Wandersman, L. P. (1978). Development and utility of the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scale.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oronto.
- Guimond, A. B., Wilcox, M. J., & Lamorey, S. G. (2008). The Early Intervention Parenting Self-Efficacy Scale(EIPSES). *Journal of Early Intervention, 30(4)*, 294-320.
- Harty, M., Alant, E., & Uys, J. E. (2006). Maternal self-efficacy and maternal perception of child language competence in pre-school children with a communication disability. *Child: care, health and development, 33(2)*, 144-154.
- Hsu, Hui-Chin., & Sung, Jihyun. (2008). Separation anxiety in first-time mothers: infant behavioral reactivity and maternal parenting self-efficacy as contributors. *Infant Behavior & Development, 31*, 294-301.
- Leerkes. E. M., & Burney. R. V. (2007). The development of parenting efficacy among new mothers and fathers. *Journal of Infancy, 12(1)*, 45-97.
- Montigny, F., & Lacharite, C. (2005). Perceived parental efficacy: concept analysi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49(4)*, 387-396.
- Morawska, A., Winter, L., Sanders, R. (2009). Parenting knowledge and its role in the prediction of dysfunctional parenting and disruptive child behavior. *Child: care, health and development, 35(2)*, 217-226.
- Sanders, M. R., & Woolley, M. L. (2004).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self-efficacy and parenting practice: implications for parenting training. *Child: Care, Health & Development, 31(1)*, 65-73.
- Teti, D. M., & Gelfand, D. M. (1991). Behavioral competence among mothers of infants in the first year: the mediational role of maternal self efficacy. *Child Development, 62*, 918-929.
- Teti, D. M., & Gelfand, D. M., Messinger, D. S., & Isabella, R. (1995). Maternal depression and the quality of early attachment: An examination of infants, preschoolers and their mothers. *Developmental Psychology, 31*, 364-376.

Abstract

A study on Validity of the Parenting Efficacy Scale  
– A base study on development of the parenting efficacy –

Jung, Mi-Hyu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alidity of the parenting efficacy scale. This will be base study for improvement of parenting efficacy program for preschool child mothers. This study was investigate of Choi & Jung's parenting efficacy scale that was for school child.

In this study the validity of the scale was verified. There are 5 subscale : parenting knowledge, parenting attitude, ability of the self regulation, ability of the solve the problem, ability of the conversation.

Key Words : parenting efficacy, educational program for parents, enfant

---

\* Adjunct professor, Dept. Child Welfare, Namseoul University.